

포스트휴먼의 사회윤리적 방향

- 제3세계 신학의 관점에서

김동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포스트휴먼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 III. 제1세계와 제3세계의 포스트휴먼
- IV. 제1세계의 장악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을 통해
- V. 인종혐오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콘의 중재적 입장을 통해
- VI. 지배적 종속구조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본회퍼의 길 예비를 통해
- V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5>

• ABSTRACT •

A Posthuman Socio-Ethical Direction: from a Perspective of the Third World Theology

Prof., Kim, Dong Hwa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primarily examines the existence of the posthuman as a human being enhanced by cutting-edge technologies through the prefix 'post', and through the same terminological analysis, investigates the aspects of the post-modern/post-Corona era in which posthumans live. Based on this background study, what it intends to focus on is that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first and third worlds exists not only in the modern era, but also in the postmodern/post-Corona era.

With this awareness,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a clue for resolving the first world/third world conflic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ree precedents in the 20th century. The first attempt is through the eclectic position of John C. Bennett. The second is through James H. Cone's mediating position. The third is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way for the Lord, which Bonhoeffer suggested. Throughout this research process, it conclusively proposes that whether in the 20th or in the 21st centuries, the persistent subordinate structure can be realistically dismantled only when humans with power in the first world voluntarily recognize and act on problems.

Key words: Third World Theology, Subordinate Structure, Posthuman, Post-COVID-19, Aversive Racism,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포스트휴먼이란 첨단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육체나 정신이 강화되어 제반 능력이 향상된 인간이라고 간략히 정의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함축하고 있듯이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간의 특성은 접두어인 ‘포스트’가 규명해주고 있다. 즉 휴먼(인간)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포스트’라는 접두어가 ‘강화된’ 혹은 ‘향상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우선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접두어 ‘포스트’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며, 특별히 이러한 규명을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즉 ‘포스트’휴먼이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의 시대 흐름 속에서,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상 속에서 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시대상황적, 사회윤리적 접근 방식을 통해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모던 시대(근대)를 살아가던 인간(휴먼)이 경험하던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갈등구조가 21세기 포스트모던/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에게도 그대로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본 논문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세 가지 전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 가지 전례들 중 첫째는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와 해방신학을 연결시킨 베네트(John C. Bennett)의 절충적 입장이며, 둘째는 20세기 흑인해방운동에 있어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 저항과 엑스(Malcolm X)의 폭력적 항거를 연결시킨 콘(James H. Cone)의 중재적 입장이고, 셋째는 20세기 나치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실천하며 제시했던 ‘길 예비’이다.

이러한 20세기 세 가지 전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며 기대하는 바는 21세기형 제1세계/제3세계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즉 첫째 전례의 분석을 통해서도 21세기에

제1세계의 장악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며, 둘째를 통해서서는 21세기에 인종협오를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셋째를 통해서서는 21세기에 지배적 종속구조를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II. 포스트휴먼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앞서 전제로 삼았듯이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간은 보편적 개념의 인간이 아니라 그 앞의 어근이자 수식어인 ‘포스트’에 의하여 규정되어지는 인간이다.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가 규정해주는 인간은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육체와 정신이 강화된 인간으로서 기존 인간과는 달리 제반 능력이 향상된 인간이다. 한편 사변적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가 규정해주는 인간은 기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 달라지는 인간으로서 ‘포스트’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지향하는가에 따라 그 특성이 정해지는 인간이다.

물론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겠으나 포스트휴먼에 관한 이번 논의에 있어서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자하는 측면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포스트’가 규정해주는 ‘강화’ 혹은 ‘향상’이라는 명확한 의미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전자에서와는 달리 후자에서는 작금의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인간을 논하는데 있어서 ‘포스트’가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으며 어떤 존재론적 특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의 접두어인 ‘포스트’의 의미는 현대 철학의 사조로서 많이 논의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용어에 있어서 ‘포스트휴먼’이 처음 사용된 것은 ‘포스트모던’ 보다 100여년이 지난 후였지만, 철학의 사조로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둘 다 20세기 후반이었다. 포스트휴먼에 초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70년대 즈음에 이르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 담론 중 특별히 휴먼(인간)에 대해 집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이었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접두어 ‘포스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접두어 ‘포스트’와 일맥상통한다.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접두어 ‘포스트’는 모던(근대)적 사조 ‘이후의’ 사조를 뜻하는 동시에, 모던(근대)적 사조를 ‘넘어서는’ 사조를 뜻한다. 결국 두 뜻 모두 이전과는 구별되는 사조, 즉 근대(모던) 이후의 혹은 근대(모던)를 넘어서는 사조를 지향하고 있다.¹⁾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거론되는 소위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를 통해 다시금 상기되었다.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면서 사용되는 포스트코로나의 접두어 ‘포스트’ 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접두어 ‘포스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시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이후의’ 시대를 지칭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전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모던(근대)적 사상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그리고 모던(근대)적 휴머니즘과는 구별된 의미에서의 포스트휴머니즘처럼,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와는 구별된 의미의 시대를 지칭 및 지향하고 있다.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점은 현저하다.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구별은 ‘마스크 착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인류와 그렇지 않았던 인류를 시기적으로

1) 김동환, “포스트휴머니즘에 내재된 포스트모던 특성에 관한 신학적 비평,” 『대학과 선교』 45(2020), 94-96.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마스크 착용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 현상이자 특징이 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스트휴먼을 지칭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간(mask-wearing human)’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마스크 착용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의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국제적으로 일상화된 이러한 현상이 범세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 인간(휴먼) = 포스트휴먼’이라는 일상화된 공식과 그로 인해 ‘마스크 착용’으로 대체되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범한 ‘포스트’라는 접두어의 의미와 사용이, 오히려 전혀 당연하지 않으며 이상하게 느껴지게 된 꽤나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1세기 범세계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금력이 뛰어난 국가에서는 마스크가 남아돌고,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한 국제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스트휴먼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간의 범주에서 마스크를 쓸(소유할) 수 있는 인간(mask-wearable human)과 마스크를 쓸(소유할) 수 없는 인간(mask-unwearable human)이 구분되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결과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스트휴먼의 범주에 전자는 남고 후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마스크 이슈로부터 코로나 백신 이슈로 이어지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백신 전쟁,’ ‘백신 정치’라는 말이 등장하듯이 백신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²⁾ 그 현상 뒤에는 역시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현저

2) 최경석에 의하면, “백신을 먼저 개발한 선진국이나 백신 개발 기업을 보유한 국가에서

한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구별’을 뜻하던 접두어 ‘포스트’의 의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회적 ‘차등’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차등은 국제 정치경제적 힘의 논리 속에서 사회적 ‘차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은 국가 내에서는 ‘혐오주의’로, 국제 관계에서는 ‘국수주의’로 나타났다. 우선 혐오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24년에 사회학적 분석에서 처음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친밀성(intimacy)에 근거하여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미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거리두기’와 쉽게 연결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연결이 지양되기는커녕 본래 의미의 조사과정도 없이 쉽게 이루어졌으며, 결국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닌 본래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종 간 혐오의 폭력적 형태로 왜곡되어 해외에서 일어났다. 1924년에 파크(Robert E. Park)가 인종적 태도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위해 처음 사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로 그 개념 그대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닌 ‘인종적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극단적으로 실현된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³⁾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는 국제 관계에서

먼저 자국 국민에게 우선 점종하는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 태도(최경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311)까지 나타났다.

3) 김동환, “코로나19 이후 신앙인의 관계성과 교회의 방향성 —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1(2020), 119-120.

의 국수주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몇 년 전부터 국제적 흐름을 타고 등장했다. 그 화두는 미국에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정권이 2016년 시작부터 표방한 배타적 자국 중심의 국정 운영이었다. 미국의 국수주의적 입장에 맞불을 놓은 것은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외치는 중국이었으며, 그 와중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자국의 안전을 내세우며 서로를 밀쳐내는 범세계적 국수주의 현상을 야기 시켰다.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마스크나 백신 이슈에서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범세계적 국수주의 흐름 속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역시 정치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교류의 단절 속에서는 정치경제적 의존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력갱생이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III. 제1세계와 제3세계의 포스트휴먼

마스크, 백신, 인종혐오, 국수주의 이슈는, 모던을 지나 포스트모던을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에게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석해야 하며, 어떻게 합당하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도전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별에서 차등으로, 차등에서 차별로 왜곡되어가는 포스트휴먼의 ‘관계성 회복’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때 관계성이란 개인 윤리적 차원과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의 관계성에 집중해보고자 하며,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대 국가의 국제적 관계성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4) 위의 논문, 128.

국제적 관계성에서 볼 때 국가 간 사회적 차별에 관한 분석은 소위 제1세계 국가와 제3세계 국가 사이의 관계 분석으로부터 논의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는 구분의 기원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귀족을 중심으로 한 상위 지배 권력층을 제1계급으로, 이에 반발하여 혁명을 일으킨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제2계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위 냉전시대를 맞이하며 보다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이념에 따라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국가를 제1세계로, 소련(러시아)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제2세계로, 그 외 다른 국가를 제3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냉전시대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본주의 진영의 선두인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인 소련(러시아)을 제1세계로, 서방 선진국과 아시아의 일본을 제2세계로, 당시 중국을 위시한 소위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⁵⁾

물론 이러한 구분은 냉전시대가 지나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 질서의 큰 지각변동 속에서 새롭게 바뀌었다. 특별히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만이 아니라 소위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경제력이 국제 정세에 주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대에는 제1세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국가가 냉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그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필두로 하여 21세기의 국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분명 제1세계 이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제2세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세기 냉전시대에서나, 21세기에서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구분은 각 국가의 독립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미치는 힘(권력)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5)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서울: 한울, 1988), 80.

는 사실이다. 즉 어느 시대에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제1세계를 어느 국가로 상정하든지, 제1세계는 제2세계보다, 제2세계는 제3세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제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장악하게 되는 국제적 지배구조 혹은 종속관계가 세기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어온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갈등구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백신, 인종혐오, 국수주의 이슈를 통해 드러난 범세계적 차원의 차별 현상도 제3세계에 대한 제1세계의 지배적 종속구조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국 내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제3세계 국가는 경제적으로 마스크 생산력이 우월한 제1세계 국가로부터 마스크 공급을 의존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배적 종속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⁶⁾

경제력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운운되는 작금의 과학문명시대에는 기술력도 지배적 종속구조를 형성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국가가 향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2017년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처럼 첨단 테크놀로지를 소유한 국가가 제1세계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제3세계로서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백신 이슈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제1세계로, 그렇지 못한 국가는 제3세계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20세기 냉전시대로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제1세계와

6) 예를 들어, 2020년 중순 기준으로 제1세계 국가인 유럽의 프랑스는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인해 4,000만장의 재고로 골머리를 앓는 반면, 제3세계 국가인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 자국 내 마스크 제조업체가 없어 수요의 전량을 수입시장에 의존해야 한다(코로나19 감염 막는 '마스크' 공급, 세계는 지금? 『의학신문』 2020년 6월 18일자).

제3세계의 갈등은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적 종속관계를 만들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20세기에 명확히 드러나던 정치력이나 군사력 뿐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서도 세기를 거치며 답습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적 갈등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지배적 종속관계의 오랜 답습의 역사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마치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갈등 문제도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갈등 문제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등 20세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국가 간 지배적 종속관계의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3세계에 대한 제1세계의 지배구조와 종속관계를 조명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IV. 제1세계의 장악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을 통해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갈등 및 종속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 시대적 차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 또한 이전의 역사와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예나 지금이나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적 종속구조의 피해자는 제3세계이기에 제3세계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세계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제1세계의 지배적 종속구조를 강화시키는 입장에서 화두에 오르는 대표적 인물은 니버(Reinhold

Niebuhr)이다. 사실 그가 제시한 기독교 현실주의 자체는 제1세계 편향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등장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목격하며 그가 초점을 둔 힘(권력)의 국제적 관계와 흐름은 제3세계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려는 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치신학에서는 익히 알려진 대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피조성을 거부하는 교만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관한 철학적 신학의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⁷⁾ 전쟁의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 어떻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인 차원의 사회악으로까지 확장되는지 분석했다.⁸⁾ 이러한 철학적 신학의 분석이 그의 정치신학적 안목을 통해 현실 세계의 정치 흐름 속에 접목된 것이 기독교현실주의의 태동이었다. 이때 그가 주된 관심을 둔 힘의 주요 세력들은 세계대전과 이후 냉전시대를 주도한 제1세계 국가들이었다. 물론 그의 주된 관심 속에 제3세계 국가들이 들어 있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주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지배적 종속구조 형성을 의도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니버의 제1세계 중심의 기독교현실주의가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적 종속구조를 형성시키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되짚어 봐야 할 내용의 핵심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전례가 20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7)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16.

8)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남정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7.

며, 이를 전례로 삼아 21세기에는 그러한 현상과 결과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버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20세기의 극명했던 냉전시대도 아닌 21세기의 활발한 국제교류의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의도적으로 제1세계의 힘을 과시하며 다시금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적 종속구조를 형성시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 정세는 실로 위험한 양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시대적으로도 착오이며,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금 범하는 실수이다. 근대 휴먼의 실수를 현대 포스트휴먼이 ‘포스트’라는 접두어의 의미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거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의 재발이 아니라 범인류적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적 종속구조를 강화시키게 된 니버식 정치신학의 입장을 해결하고자 두 세계의 중도적 입장에 섰던 20세기 정치신학자가 다행히 전례로 있었는데, 그는 베네트(John C. Bennett)였다. 베네트의 정치신학은 기본적으로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나, 니버와 달리 기독교현실주의를 개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배적 종속구조를 인지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베네트는 20세기 정치신학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현실주의와 해방신학 사이의 긴장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본인이 기독교 현실주의를 표방하는 제1세계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버식 제1세계 정치신학에 의해 종속되는 제3세계 정치신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연결시키려는 ‘절충적(eclectic)’ 노선을 채택하였다.⁹⁾

베네트의 기독교현실주의가 제1세계적 종속이론을 ‘넘어서는’ 절충적

9) 김동환, “존 C. 베네트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현 시대적 조명,” 『신학연구』 67(2015), 206.

노선을 채택한 것은 당시 20세기 냉전시대를 거칠 때에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전례이다. 앞서 접두어 ‘포스트’를 통해 살펴본 대로, 근대(모던) ‘이후에’ 이와는 다른 사고의 틀을 구상하는 현대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이고, 인본주의적 이성애 근거하여 기존의 비합리주의적 패러다임에 강하게 도전하던 근대적 공격성과 비판의식을 ‘넘어서는’ 현대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이며, 그러한 포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볼 때, 근대 정치신학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제1세계적 종속이론은 20세기 모던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이론이다. 다시 풀어 말하면, 정치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등 다양한 국제적 힘(권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20세기에서보다 더욱 복잡하고 집요하게 형성되는 21세기형 지배적 종속이론은 ‘포스트’모던,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근대적 이론이며, 필히 ‘넘어서야’ 하는 모던적 패러다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대적 공격성과 모던적 비판의식은 포스트모던-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근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여전히 같은 유형의 힘의 논리에 따라 제1세계로부터 제3세계를 향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답습하며 전수되어서 ‘포스트’를 논하는 현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제1세계적 종속이론을 21세기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가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완벽한 길은 아니더라도 그 길의 초입을 닦아주는 역할을 20세기에 시도되고 추진되었던 베네트의 절충주의 방식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절충주의 방식을 통해 베네트가 이루어낸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현실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지닌 제1세계적 관점을 ‘넘어서서’ 제3세계적 관점에서 제1

세계와 제3세계 모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그의 통찰력과 포용력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950년대에 시작되어 영미권에도 소개되던 해방신학을 접한 베네트는 당시 미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기독교현실주의가 새롭게 부각되는 해방신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시대에 부합한 사상이자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해방신학의 주요 내용들이 당시 주류 신학이었던 기독교현실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현실주의를 이끌던 주요 인물로서 이러한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와의 하모니를 추구했던 인물은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를 주도하던 당대 인물들 중 베네트가 유일했다. 해방신학과의 연대를 시도한 그의 저서 *Radical Imperative*¹⁰⁾는 그의 마지막 저서이기도 하며, 그 이전의 저서들과는 차별화되는 저서였다. 그는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 노선을 발전시키던 그의 신학에 획기적으로 해방신학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제1세계가 누리던 사회구조적 특권에 대한 자성과 그로 인해 지배적 종속구조에 휘말린 제3세계의 상황을 주시하고 양자 간의 협력을 추구하였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현실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니버식 제1세계 기독교현실주의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견지해온 대표적인 국내 제3세계 신학자 노정선조차도 제3세계의 고통 받는 민중들에 대한 베네트의 관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보면, 제1세계 신학의 주류로서 제3세계에 대해 관심을 보인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은 기독교현실주의가 정치신학계를 주도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파격적 입장이었음이 분명하다.¹¹⁾

이러한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은 중요한 전례일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

10) Bennett, John C. *Radical Imperative: From Theology to Social Ethic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11) 김동환, “존 C. 베네트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현 시대적 조명,” 220-229.

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가 21세기형 지배적 종속이론을 실제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제1세계의 지배적 종속이론을 넘어서는 길의 초입을 열어 줄 수 있는 ‘주체’가 지배받는 제3세계가 아니라 제1세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양자 간의 소통과 연대가 필수적이겠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속적 관계 속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제1세계가 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배받는 계급이 아무리 열심히 억눌림을 호소하고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지배하는 계급이 이를 적극 수용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좀처럼 어렵다. 또한 그러한 이상적인 과정을 통해 실제로 종속적 지배관계가 해소된 경우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위로부터의 세력에 대항한 아래부터의 혁명이나 계급투쟁을 통한 체제 전복이 아니고서는 기존의 지배적 종속관계가 해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결국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종속구조의 실질적인 해결은 지배층인 제1세계가 제3세계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시작으로, 종속구조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성함으로써 제3세계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극히 이상적이고 원론적이라서 실제 역사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이러한 일을 20세기에 제1세계에서 기독교현실주의자인 베네트가 절충적 입장을 표방하며 이루어내었기에, 이를 전례로 삼아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를 ‘넘어서는’ 포스트모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스트휴먼이 되어보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그리할 때 접두어 ‘포스트’의 왜곡된 ‘차등’ 혹은 ‘차별’의 의미도 해소될 여지가 생길 것이며, 본래적 의미인 이전과는 ‘구별’되는 의미로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고,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도 해소될 길이 열릴 것이다.

이는 과거를 통해 건설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안이라 볼 수 있으며, 익히 알려진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1세계 정치신학자로서 베네트는 제1세계에 관한 자성과 함께 제3세계와의 연대를 이론을 ‘넘어서서’ 실천하였다. 그가 서거한 후 유니언 신학대학원 총장 헨드릭스(Holland Hendrix)가 회고한 것처럼, 베네트는 페미니즘을 초창기부터 지원하였고, 미국의 인권운동을 지지하였으며,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신랄히 비판하였고, 소수 약자의 경제권을 옹호하였다.¹²⁾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베네트의 실천이 이상적이거나 기보다는 현실적이었다는 점이다.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의 정치적 실천이 ‘힘(권력)에는 힘’이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의로운 국제 질서의 구현 또한 ‘힘의 균형’이었듯이,¹³⁾ 기본적으로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의 노선에 있었던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도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천되었다. 즉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힘이 없는 제3세계가 아니라 힘을 가진 제1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현실적으로’ 직시하였다. 그러했기에 그는 기독교현실주의자답게 힘을 가진 진영이 힘을 분산시키고 균형 지움으로써 정의로운 국제 질서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파악했으며, 이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절충적 입장의 실천은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원론적 실천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현실적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처럼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베네트의 실천의 전례는, 그의 실천을

12) 위의 논문, 230.

13) 박도현, “교범서가 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윤리』 16(2008), 26.

14)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절충주의적 방안이 상충되는 양자의 화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시도라는 비평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어렵다.

현재에 적용하는 것 또한 이상적인 과거의 회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결단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마스크나 백신을 독점하여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근대(모던)적 국수주의 노선을 ‘넘어서서’ 제1세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한 범지구적 안목을 가지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 씌워진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를 자성적으로 인지하고, 그들의 억눌림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마스크 정치, 백신 전쟁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실제로 결단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거쳐 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가 근대(모던)를 ‘넘어서서’ 새롭게 시도해 보아야 하는 사명이자 과제이다.

V. 인종혐오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콘의 중재적 입장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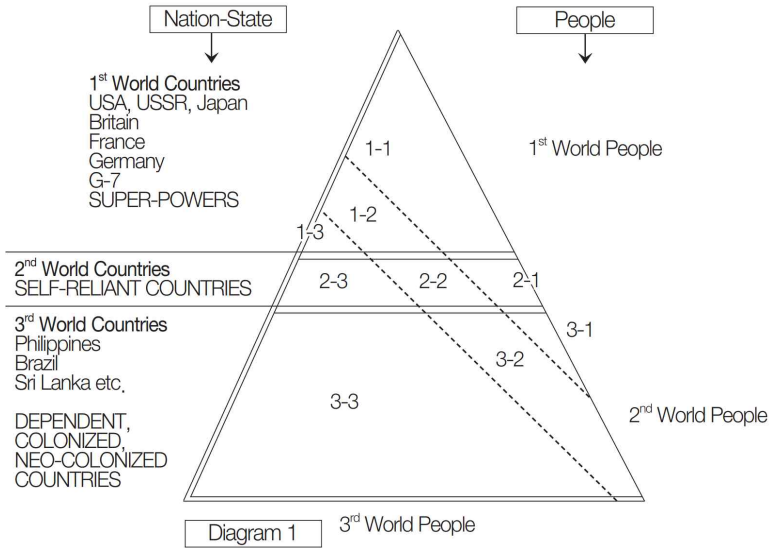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를 논할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윤리적 이슈로서 ‘인종 혐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사태 초기부터 중국인을 향한 인종적 혐오 현상이 국제적 사회현상으로 일어났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행보 속에서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화두와 함께 중국인 공포증을 뜻하는 시노포비아(sinophobia)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¹⁵⁾ 중국의 책임론이 국제정치의 이슈로 부각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바라보던 세계인들의 정서 속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점차 스며들게 되었다.

15)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에도 -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116.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정서는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모두에 대한 혐오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서구인들의 동양인을 향한 혐오의 형태로 왜곡되어 표출되기 시작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서구인들의 동양인 혐오 현상은, 앞서 살펴본 21세기형 제1세계-제3세계 지배적 종속구조 형성에서처럼,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근대(모던)적 현상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 거주 동양인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분노가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데에는 자국중심의 국수주의를 표방하던 근대(모던)적 트럼프 정권의 정치 노선의 역할이 컸다. 즉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중산층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던 트럼프 정권 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힘을 얻었던 백인과 그 힘에 억눌리게 되었던 흑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돌파구를 통해 백인은 인종적 우월성을, 흑인은 인종적 억눌림을 그들 모두에게 만만한 소수 인종인 아시아인에게 표출한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인 혐오 이슈에서 드러나는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는 이전에 살펴본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의 제1세계-제3세계 종속구조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1세계-제3세계 종속구조에서 강조된 힘의 논리의 대상은 국가 대 국가인 반면, 아시아인 혐오 이슈에 있어서 힘의 논리의 대상은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시민 대 시민이기도 하다. 즉 서구인들이 주요 구성원인 국가가 동양인들이 주요 구성원인 국가에 대해 표출하는 아시아인 혐오도 있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국가 구성원인 국가 내에서 표출되는 아시아인 혐오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 내에서 표출되는 지배적 종속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표출되는 지배적 종속관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의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지배적 종속구조가 국가 내에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갈등의 심각성에서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들을 도표화하여 설명해보면 그림과 같다.¹⁶⁾ 우선 위와 아래로 구분해서 제1세계 국가로부터 제3세계 국가까지의 3단계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지배적 종속관계이다. 다음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의 사선으로 구분해서 제1계층 시민으로부터 제3계층 시민까지의 3단계가 국가 내에서의 지배적 종속관계이다. 이는 20세 말 국제 정세에 근거하여 노정선이 분류한 도표인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순위와 시민 층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지배적 종속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별히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제1세계 국가 내에서도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지배적 종속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시민 계층 간에 형성된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의

16) Noh, Jong-Sun, *Liberation God for Minjung* (Seoul: Hanul, 1994), 24.

아시아인 혐오를 예로 들어보면,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1-3의 시민계층으로서 동양인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1-1로부터 1-3으로의 지배적 종속구조가 20세기의 제1세계-제3세계 지배적 종속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심각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가 내에서의 인종차별 이슈에 있어서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또한 앞서 제1세계 국가와 제3세계 국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한 베네트식 절충적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힘이 없는 제3계층 시민이 아니라 힘을 가진 제1계층 시민이 이러한 지배적 종속구조의 불합리성을 직시하고 자성함으로써 제3계층 시민과 연대를 시도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그 방안이다.

또한 그렇다면 제1세계 기독교현실주의자로서 그러한 실천을 시도한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의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인종혐오를 포함한 인종차별 이슈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실천을 시도한 전례가 있는가? 다행히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해온 미국에서 제1계층과 제3계층 시민 사이의 연대를 꾀한 전례가 흑인해방신학의 역사 속에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흑인해방신학의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 유형은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주도한 ‘비폭력 저항’이다. 해방신학의 유형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흑인 인권운동 전반을 논할 때 미국을 배경으로 한 그의 비폭력 저항은 가장 대표적인 흑인 해방을 위한 시민운동이었다. 그는 간디(Mahatma Gandhi)의 비폭력 운동에 사상적 영향을 받아 이를 기독교 신앙과 신학으로 발전시켜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인종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여타 흑인 인권운동처럼 그도 기본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했지만, 그가 제시한 비폭력 저항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통합적 입장의 제시였다.

둘째 유형은 1960년대 킹 목사와 함께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두 기둥이었던 엑스(Malcolm X)가 주도한 ‘폭력적 항거’이다. 개신교 가정을 배경으로 태어나 자랐으나 이슬람교로 귀의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흑인 해방신학의 유형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주장한 폭력적 항거의 목소리는 당시 미국 교계와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폭력적 항거는 킹이 주도한 기독교적 비폭력 저항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으며, 백인들의 악한 인종 우월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용인된다는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공격적 태도는 백인들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살해되는 경험으로부터 생긴 증오가 밑받침 되었으며, 백인 인종 우월주의에 맞서 흑인 인종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급진적 양상을 보였다. 흑인의 힘(Black Power) 운동으로도 불리는 그의 폭력적 항거는 힘에는 힘으로 해결하는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와 방법론에서는 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유형은 콘(James H. Cone)이 제안한 ‘중재적 입장’이다. 미국 유니온신학대학원 교수로서 그는 킹의 비폭력 저항과 엑스의 폭력적 항거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양자를 중재함으로써 미국 흑인신학의 학문적 토대를 다졌으며, 그에 의해 흑인신학은 제3세계 해방신학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흑인해방신학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인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¹⁷⁾와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¹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종교인 기독교가 억눌

17) Cone, James H.,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18) Cone, James H.,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10).

린 미국 흑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신학은 억눌린 흑인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억압 양상을 인류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콘은 흑인해방신학이 미국 주류 신학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신학자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흑색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난 억눌린 인간의 정황을 인지하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낼 사명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흑인인지 백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명 실현 방식에 있어서도 비폭력 방식이든 폭력적 항거이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종이 무엇이든, 방식이 어떠한 억압당하는 인간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시적인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흑인해방운동은 추진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콘은 제안하였다.¹⁹⁾

이제껏 살펴본 흑인해방신학의 세 가지 유형 중 인종차별 이슈에 있어서 제1계층과 제3계층 사이의 연대를 꾀한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셋째 유형인 콘의 중재적 입장이다. 물론 첫째 유형인 킹의 비폭력 저항에서도 양측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들어있다. 하나님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이기에 백인과 흑인이 공존해야 한다는 킹의 통합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소망이 담긴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나타나듯이 기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두고 그가 꿈꾸었던 이상주의적 목표였다. 그러했기에 꿈과 같은 이상주의적 킹의 입장을 비판적 현실주의자인 엑스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비폭력과는 상반되는 폭력적 항거를 추진한 것이다. 킹에 반

19) 김동환, “흑인 신학(Black Theology),” 유경동 외 기독교윤리학자 8인, 『기독교 윤리학 사전』(용인: 킹덤북스, 2021), 488-491.

(反)하는 엑스의 입장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건설을 꿈꾸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부각되었던 사회복음(Social Gospel) 운동의 이상주의에 반발하여 지극히 현실주의적 노선을 표방한 니버의 입장과 방법론상으로는 유사하다.

물론 콘의 중재적 입장도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적 바탕에 근거한 사변적 내용들이 많았기에 실천적인 면이 약하다는 점에서 그 또한 이상주의자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제시는 꿈을 꾸는 이상향의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참여적 제시였기에, 그의 중재적 입장을 이상주의적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접근 방식으로 비유하자면, 베네트가 해방신학과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를 절충하려 노력했던 것처럼, 콘은 킹의 이상주의적 측면과 엑스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학문적으로 통합하며 중재하였다. 콘의 중재적 입장은 비록 사변적인 한계를 지니고는 있었지만, 백인과 흑인이라는 색깔론을 ‘넘어서서’ 인류 화합이라는 거시적 제안을 하였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존의 인종 차원의 종속구조를 ‘넘어서서’ 전 사회적 변화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실천적 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 인종차별의 근대(모던)적 종속구조의 틀을 ‘넘어서서’ 21세기 포스트모던적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세기에 콘이 제시한 거시적이고 인종차별의 양극화 구도를 넘어서는 중재적 입장은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3계층으로서 공격 대상이 된 해외 거주 동양인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게 해줄 수 있는 전레이자 방안이 될 수 있다. 콘의 중재적 입장에 비추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 중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이후 코로나19 이슈는 전

세계의 이슈가 되었고 전 인류가 이슈의 대상이 되었기에, 이 정황 속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인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해야 할 자명한 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협력하는 일이며, 자국의 안보를 비밀로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강한 범지구적 연대를 추구하는 일이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면, 20세기 콘의 거시적인 인종 이슈의 해석과 전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중재적 입장은 21세기에 소환되어야 할 유용한 입장이다.

VI. 지배적 종속구조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본회퍼의 길 예비를 통해

제1세계-제3세계, 제1계층-제3계층의 지배적 종속구조 사이에서 중도적 노선을 취한다는 점에서 콘의 중재적 입장과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은 둘 다 20세기를 넘어서서 21세기에도 적용되어야 할 건설적인 전레이자 실현 가능성에서도 유용한 방안이다. 다만 콘의 중재적 입장이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에 견주어 이쉬운 부분은 인종 간의 중재를 제시하는 주체인 콘 자신이 억압받는 제3계층 시민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거시적 차원에서 색깔론을 넘어서는 중재적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제시의 주체가 억압을 주도한 제1계층 시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실현을 위한 방법론상의 한계이다. 이때 한계의 주요 내용들 중 하나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는 베네트의 과정 속에는 들어있던 ‘자성’의 단계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자성은 곧 ‘회개’이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신앙인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첫 메시지도

회개의 촉구였기에(마 4:17) 신앙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회개이다. 20세기 양심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는 신앙인이 지상에서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개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개척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길 예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 ‘회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길 예비의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이 결코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데서 성립되며, 또 길 예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회개에로 인도한다”²⁰⁾는 것이다. 만약 길 예비의 윤리에 근거한 회개의 첫 걸음을 놓친 채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값싼 은혜’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²¹⁾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값비싼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은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목도하며 기독교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히틀러 암살을 주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실천지향적인 본회퍼가 신앙인의 사명의 첫 걸음으로서 ‘참회’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실천지향적인 그가 말하는 참회란 사변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나타나는 철저한 회개의

20) Bonhoeffer, Dietrich, *Ethik*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0.

21)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31-32.

행위를 의미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회개의 행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그는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닦아 가시는 길을 인간이 사명감을 내세우면서 선부르게 먼저 닦아 가려는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그는 경고하였고, 신앙인의 사명이 길 자체가 아니라 ‘길 예비’에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본회퍼가 강조한 길 예비의 첫 단계는 복음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돌이키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회개 곧 참회가 이루어질 때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복음의 기본 원리로서 예수께서 사역의 처음부터 촉구하신 회개를 신앙인들이 실천해야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으며, 이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도 역시 회개라는 사실이다. 즉 신앙인의 지상에서의 사명 실천 이전에 신앙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있는 필수 관문이 회개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만 사명 실천도 가능하며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본회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실천은 불의의 근원인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었으며, 그로인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곧 구원은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나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비록 본회퍼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지만, 그가 세웠던 계획의 실천 과정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독교의 구원이 실제로 지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그의 전례의 핵심은 그 계획의 주체가 억압받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억압하던 독일인이었다는 점이다. 독일인

으로 본회퍼가 나치로 소급되는 독일인들이 억압하던 유태인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자성했으며, 자성의 실천으로서 참회를 제시했고, 참회의 실천으로서 독일인 히틀러의 암살을 주도했다는 점은, 힘에 억눌린 계층이 아니라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지배계층이 먼저 자성하고 회개하여 억눌린 계층과 연대하려고 노력할 때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처럼 20세기 유럽에서 제1계층 시민이었던 독일인 본회퍼가 제3계층 시민이었던 유태인들을 향해 보여준 전례는 앞서 20세기 미국에서 제1세계 신학자였던 베네트가 제3세계 해방신학자들을 향해 보여준 전례와 일맥상통한다. 상황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이슈에 대한 접근(사명 실천) 방식과 문제 해결(구원)을 위해서, 본회퍼와 베네트의 전례는 둘 다 억압하는 입장에서 있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성의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만 한다는 점과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역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갖지 못한 자와의 연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성의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본회퍼의 전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배적 종속 구조를 과감히 넘어서서 억압된 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실천적 길 예비의 사명을 역시 예나 지금이나 지속해서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VII. 나가는 말

포스트휴먼에 관한 사회윤리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우선적으로 밝혀낸 사실은 결국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이 경험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이 그 이전 시대를 살던 기존 인간의 사회 구조적 상황과 근본 틀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근대 혹은

모던 시대라 불리는 20세기를 살아온 휴먼이 경험했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갈등구조가 포스트모던 혹은 최근 포스트코로나라 불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에게도 그대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소 냉소적인 시대 분석이자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지만, 본 논문의 취지는 그러한 냉소적인 양상을 극복하고 넘어서고자 함에 있었기에, 이를 위해 20세기에 있었던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전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21세기형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된 세 가지 전례, 곧 베네트와 콘과 본회퍼의 전례는 구체적으로 20세기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 상황에서도,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아시아인 혐오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가 세기를 거듭하며 지속되고 있는데 왜 해결은 되지 않는가를 논의할 때, 실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로서 필히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함부로 가정해 보아서는 안 되는 예민한 이슈이긴 하지만, 만약 인종차별 이슈에 있어서 중재적 입장을 제시한 콘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었다면, 그래서 제1세계 신학자였던 베네트의 절충적 입장과 제1계층 독일 시민이었던 본회퍼의 길 예비의 입장에서 서처럼 힘을 가진 자의 자성과 회개의 과정이 더욱 당당히 추가되고 더욱 부각될 수 있었다면, 콘이 주장했던 흑인해방신학이 제1세계 중심의 주류 신학에 자리 매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지 않았을까? 또한 만약 그러했다면 흑인해방신학을 통해 인종 간 화합의 기독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콘의 중재적 입장도 그가 속한 제3세계나 제3계층에서만이 아니라 제1세계와 제1계층에서도 더욱 관심 있게 받아들여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을까?

만약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아시아인

협오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제1세계 국가, 제1계층 시민들이 자신들이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자성(회개)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 제3계층 시민들과 협력하는 손길을 내미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중재적 입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콘의 합리적인 중재적 입장을 전례로 삼되 중재의 주체가 베네트의 절충주의에서처럼 제1세계 신학자가 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며, 중재를 시도할 때는 본회퍼의 길 예비에서처럼 중재의 주체의 자성과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베네트와 본회퍼의 전례가 인류 역사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한 두 번의 전례일 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례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아시아인 협오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필자 자신도 아시아인 협오의 종속구조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동양인에 속하기에 위의 논리에 잇대어 보면 현실적인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현실적 해결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동양인인 필자가 한글로 이러한 논의를 개진시키기 보다는 서구인으로서 의식 있는 학자가 서구 언어로 이러한 논의를 개진시키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네트나 본회퍼와 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상황은 그다지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그러한 전례의 소환을 기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1세계 국가가 자국중심의 국수주의를 자성하고 마스크와 백신을 제3세계에게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제1계층 시민들이 아시아인 협오를 자성하고 제3계층 시민으로 비하하던 자국 내 동양인과의 거리두기를 그만두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의 선

봉에 선 제1세계 국가가 제3세계 국가에게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앞으로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강화될 제1계층 포스트휴먼이 제3계층 포스트휴먼을 소외하지 않고 공존하려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실천을 기대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그 기대의 바탕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옳곧게 자리잡는다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체의 대상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지만 억눌리는 제3계층 인종에 속한 큰이 포용적이며 거시적 안목으로 흑백 간의 중재적 입장을 과감히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제1세계 대표적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네트가 자성의 자세를 가지고 제3세계 해방신학자들과의 연대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제1계층 시민인 독일인 본회퍼가 제3계층 시민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인 참회를 길 예비의 첫 행보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껏 살펴본 대로 그들이 올곧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삼았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20세기의 전례로 미루어볼 때 차별이나 억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와 같은 기독교적 신앙과 자세로부터 찾는 것은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기대해볼만한 일이다.

이를 위해 비록 제1세계 정치신학자로서 지배적 종속구조의 틀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자성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의를 통한 사랑의 구현이라는 올곧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20세기 제1세계 정치 현실 속에서 구현시키고자 노력했던 니버의 “불가능한 가능성”²²⁾이라는 현실주의적 방법론이, 21세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제1세계 신학자들과 제1계층 신앙인들에게 전수되어서 제3세계, 제3계층의 억눌린 상황을 이해하

22) Niebuhr, Reinhold,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5), 120.

고, 자성과 회개를 자발적,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특별히 베네트와 본회퍼의 전례에 잇대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기대가 올곧은 신앙인들을 통해 점차 현실화될 때, 21세기형 지배적 종속구조는 해체될 여지가 보일 것이며,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류는 시대착오적·근대(모던)적 종속구조를 '넘어서는' 신(新)인류로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 “존 C. 베네트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현 시대적 조명.” 『신학연구』 67(2015), 225-244.
- _____. “코로나19 이후 신앙인의 관계성과 교회의 방향성 —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1(2020), 117-146.
- _____. “포스트휴머니즘에 내재된 포스트모던 특성에 관한 신학적 비평.” 『대학교선교』 45(2020), 91-119.
- _____. “흑인 신학(Black Theology).” 유경동 외 기독교윤리학자 8인. 『기독교 윤리학 사전』. 용인: 킹덤북스, 2021, 488-491.
-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울, 1988.
- 박도현. “고범서가 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6(2008), 7-30.
- 이종원. “힘오에서 공감과 환대어로 -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105-138.
- 최경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305-333.
- Bennett, John C. *Radical Imperative: From Theology to Social Ethic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 Bonhoeffer, Dietrich. *Ethik*,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_____. *Nachfolge*,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 Cone, James H.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10.
- _____.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174 『기독교사회윤리』 제53집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Noh, Jong-Sun. *Liberation God for Minjung*. Seoul: Hanul, 1994.

‘코로나19 감염 막는 ‘마스크’ 공급, 세계는 지금?’ 『의학신문』 2020년 6월 18일자.

논문투고일: 2022년 06월 2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강화된 인간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이라는 존재를 접두어 ‘포스트’를 통해 규명해보고, 같은 맥락의 용어 분석을 통해 포스트휴먼이 살아가는 포스트모던/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배경 조사를 근거로 하여 본 글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모던 시대(근대)를 살아가던 인간(휴먼)이 경험하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갈등구조가 21세기 포스트모던/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에게도 그대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20세기의 세 가지 전례를 통해 21세기형 제1세계/제3세계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니버식 기독교현실주의와 해방신학을 연결시킨 베네트(John C. Bennett)의 절충적 입장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흑인해방운동에 있어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 저항과 엑스(Malcolm X)의 폭력적 항거를 연결시킨 콘(James H. Cone)의 중재적 입장을 통해서이며, 셋째는 나치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실천하며 제시했던 길 예비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명을 통해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20세기에나 21세기에나 권력을 가진 제1세계의 인간(휴먼)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행동하고(베네트), 자성하며 회개를 실천할 때에만(본회퍼) 고질적인 지배적 종속구조는 현실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제3세계 신학, 종속구조, 포스트휴먼, 포스트코로나, 인종혐오, 사회윤리